

S-Oil, 영업이익 76% 급감 “울상”

2009년 매출액 24% 줄어 17조원 ... 유가 하락에 정제마진 악화로

S-Oil은 2009년 4/4분기 매출액이 4조8592억원, 영업손실이 456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월29일 공시했다.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6.0% 증가했고, 영업손실도 1283억원에서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2009년 전체 매출은 17조4240억원으로 전년대비 24.2%, 영업이익은 3227억원으로 76.9%, 순이익은 2527억원으로 43.4% 각각 감소했다.

S-Oil 관계자는 “2009년 판매량은 소폭 증가했지만 국제유가가 전년대비 34%가량 떨어져 매출이 줄었고, 국제 정제마진 악화와 정기보수의 영향 등으로 영업이익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0년에는 글로벌 경제회복 추세에 따라 주로 이머징 마켓에서 석유제품 수요 회복세가 두드러질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고도화 비율이 높고 글로벌 판매역량을 겸비한 정유기업들의 수익 개선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S-Oil은 2011년 완공을 목표로 온산공장 확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0년 8000억원, 2011년 까지 총 1조4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1/29>